

서귀포시의 都市像 정립에 관한 연구*

고 경 미

요 약

서귀포시의 都市像을 정립하기 위하여 서귀포의 물적·비물적 도시상 자원을 종합하고, 시민의 의식조사를 통해 서귀포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심상을 분석하였다. 도시상의 형성을 위해 사용된 주요 이미지 요소는 폭포와 해안 단애, 바다에 펼쳐진 섬들, 가까운 한라산, 감귤밭, 삼나무 방풍림 터널, 무병장수를 비는 남극 노인성, 동박새 우는 소리, 진시황과 불로초, 셋과 일곱, 서귀포 칠십리, 노란색 등이었다. 이러한 주요 이미지를 연결하여 도시상을 형성하였고, 형성된 도시상을 구체적인 물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이벤트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연구소 연구원·조경학

* 본 논문은 필자의 1993년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 “제주도 서귀포시의 도시상 정립에 관한 연구”를 수정·요약한 것이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서귀포는 관광제주의 명소로 가장 잘 알려진 도시이다. 특히 서귀포는 신혼여행의 대명사인 허니문하우스가 있는 곳이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¹⁾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은 「관광시설개발」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내놓고 있다. 반면 1차산업 육성과 자연환경 보전 등에 대한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다. 보전보다는 개발 의견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차 산업의 장애가 불투명한 까닭으로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것으로 현지 신문은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설정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명칭 그대로 제주도 개발에 대해 다른 지방과는 다른 특별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귀포다운 개발은 오히려 서귀포에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에서 시작될 것이다. 아직도 사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의 개발 주장이 시민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가는 제주도가 제주도답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서귀포시는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내보이기 위한 공허한 관광자원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의 도시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더욱 훌륭한 개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서귀포시를 서귀포답게 보존하고 가꾸는 방식으로 도시상 정립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1)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자로 확정, 공포됨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계획 수립이 종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넘어 왔다.

행정구역 상의 서귀포시는 중문과 산남의 중산간지방 일부까지 포함하는 범위이다. 도시상 정립 방법론은 우선 도시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서귀포시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도시상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는 기존 서귀포 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원을 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상을 세우는 목적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차원은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즉 시민들로 하여금 나와 우리의 생활환경에 대해 잘 알게끔 하자는 것이다. 서귀포를 잘 알게 되면 그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해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꾸준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서귀포도 외지인이 많이 들어와 토박이들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외지인들의 생업에 대한 요구에만 휘말려든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도시를 잘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도시의 발전에 매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 도시에 대한 도시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애향심을 증진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 우리 도시의 생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다. 서귀포시의 고유한 도시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서귀포시는 이름 그대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제까지 누구도 구체적으로 따져들진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서귀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대부분 제주도라는 섬과 관련된 관광이미지일 것이고 특히 신희여행지로서 서귀포시가 으뜸으로 떠오를 것이다.

서귀포시의 시상을 세우는데는 우선 서귀포라는 곳이 너무나 명확한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서귀포를

자주 드나드는 관광객들에 의해 세워진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꾸어 나간 점이기도 하다.

서귀포시의 도시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있는 서귀포의 이미지를 관광객의 입장에서보다는 서귀포시민 중심에서 살펴보고 서귀포시민의 정서를 한데 묶을 수 있는 물적, 비물적 시상을 세우는데에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과정

1) 연구 대상 구역

서귀포시의 시상이 되는 자원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그 범위를 1차로 현재 서귀포 구시가지로 한정하고, 2차 경계로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북쪽으로는 하жат성에서 남쪽 서귀포항까지로 하고, 동서로는 보목리에서 서호, 호근 마을까지로 한다.

〈도1〉 연구대상구역

이는 현재 서귀포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이 범역이 서귀포라는 지역의 경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쪽으로 중문과 강정, 법환 등은 포함하지 않고 동쪽으로 허니문하우스와 KAL호텔, 그리고 쉼섬이 있는 보목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새섬, 범섬, 문섬, 쉼섬 등 서귀포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도서지역도 연구의 대상구역에 포함시킨다.

2) 연구의 접근방법

서귀포의 도시상을 서귀포 시민의 입장에서 세우기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서귀포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키우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주로 관광 측면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던가 하는 판단에서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행정당국의 관광지 지향 정책도 올바른 시각이나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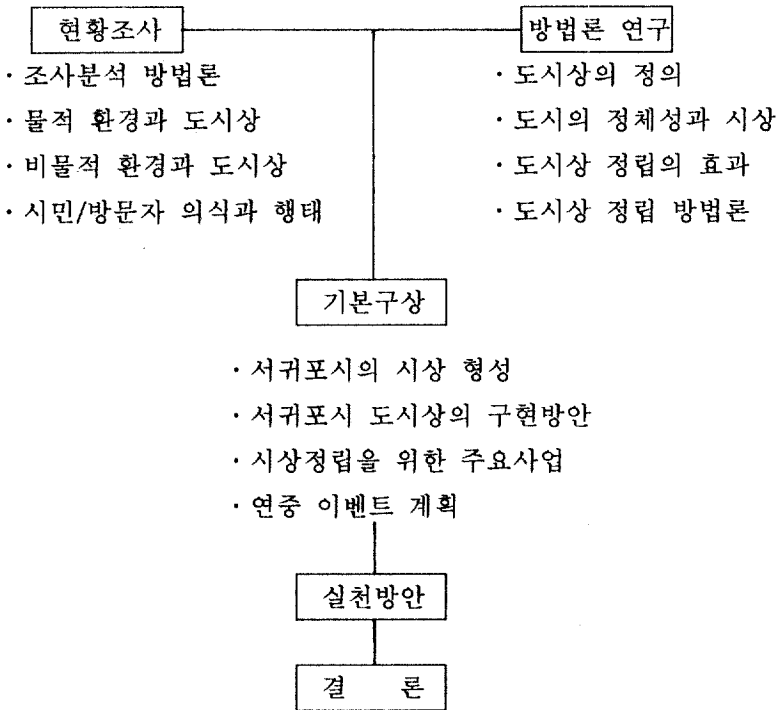
또한 진정한 도시상이란 그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고 활동할 그 지역 주민에 의해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도시가 관광지로 의도적으로 조성되다보면 다른 지역의 설계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국제화라고 느껴지지만 결국 지역적 특성²⁾이 별로 강조되지 못하여 다른 지역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의 이미지를 심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즉 신희여행지라는 고정적인 관광 이미지도 서귀포시민의 관광수입 이상의 의미로 작용하지 못했던 점도 있기 때문이다.

2) 지역적 특성이란 그 지방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특성 모두를 일컫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3) 연구의 과정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황조사와 방법론 연구를 통해 서귀포시의 도시상을 위한 기본구상을 세우고 가능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황조사는 1993년 전반기에 실시했으며, 통계 및 문서형식의 자료는 1991년도 및 1992년도 기준의 자료이다.



3. 도시상 정립 방법론

1) 도시상(都市像)의 정의

도시 특유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은 주민에게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된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그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타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한다.

도시상이란 말 그대로 「都市의 像」을 말한다. 像이란 “꼭 같지는 않지만 실물과 아주 닮았다”는 뜻이 들어있다. 도시라는 본체와 아주 닮은 어떤 것은 실물 그 자체가 아니라 실물에 대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는 心像(이미지, image)이다.

도시상이 도시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시민들 각자가 가진 도시 이미지는 추상적이고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고 산발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상, 즉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사물이 필요하다.

$$\begin{aligned}
 & \boxed{\text{都市像}} = \boxed{\text{都 市}} \text{의} \boxed{\text{像}} \\
 & = \boxed{\text{都市라는 本體}} \text{와} \boxed{\text{닮은 것}} \\
 & = \boxed{\text{都市라는 本體}} \text{에 대해} \boxed{\text{마음에 그리는 心像(이미지)}} \\
 & = \boxed{\text{都市라는 本體}} \text{를} \boxed{\text{연상하게 하는 다른 사물}}
 \end{aligned}$$

따라서 시상은 ‘규범적’이어야 한다(정주시/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14). 즉 우리 도시는 이러이러한 시상을 가져야 하겠다는 뚜렷하고도 좋은 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상의 규범성이란 추상적, 개별적, 주관적, 산발적 시상을 가시적 집단적 객관적 체계적 시상으로 전환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다. 또한 시상의 규범성이 정립되자면 시민 전체, 또는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상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생활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도시의 정체성과 시상

정체성은 identity의 번역어로 그 개념은 크게 두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동일성(同一性, sameness)이고 또 하나는 개별성(個別性, individuality)이다. 이때 동일성은 다시 변화에 대한 연속성 및 동일화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성은 특이성 및 수월성(秀越性)이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정체성의 내용이 이와같다면 그것을 촉발하고 형성하는 기제(機制)는 자의식(自意識)이다. 즉 스스로 그러한 속성에 대해 의식하고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때 자의식은 나를 지향하는 것과 남을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의 정체성 구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후자의 것이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18).

한 도시가 그 도시답다는 것은 그 도시로서 어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성(同一性)이라는 국면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정체성은 한 도시가 그 도시다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르고(特異性), 또 무언가 뛰어난(秀越性) 점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타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23). 그럼으로 해서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서로 다르고 더 낫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기 보다는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가 도시 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는 도시를 구성하는 장소가 된다.

시상이 뚜렷한 도시는 정체성이 있는 도시다. 도시의 정체성이란 한 도시가 그 도시답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도시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 도시에 대해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시민이나 방문객이나 할 것 없이 변함이 없는 해안 절경을 그대로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서귀포다운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체성은 또한 다른 비슷한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구별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르다는 점을 넘어 뛰어난 점(秀越性)이 있어야 한다. 즉 서귀포에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이 점에서 서귀포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한 점도 있다. 유리한 점이란 다른 도시에 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불리한 점이란 제주도 안에서 볼 때 서귀포만 특별한 점을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자연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주도에서도 서귀포가 갖는 수월성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음식이나 소리, 생활 특성, 특산품 등에서는 제주시나 다른 인근 읍, 면과 큰 차이를 발견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도시상의 효과

이미지(image)의 어원은 “닭은 것”, “삶”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imago이다. 이것은 넓은 뜻으로는 외계로부터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기억심상(記憶心像, memory image)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외부의 자극 없이 “재생적으로” 마음에 떠오르는 상, 즉 사물에 대한 마음의 모상(模像), 즉 심상(心像)을 말한다.

그러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정체성, 특히 변화에 대한 연속성 내지 시간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유지되자면 심상이 재생될 뿐 아니라 “재인(再認)”되어야 한다. 재인(recognition)이라 함은 시간적으로 앞뒤에 있는 둘 이상의 표상이 동일한 관념으로, 즉 동일 대상에 속한 표상으로 종합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과거에 경험,

기명한 사물이나 상태를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물이나 상태와 구별하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준거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정체성이 외향적인 “이미지”라는 매체로 추구하게 되면 홍보나 교육 등과 같은 의도적 노력에 의해 강화되기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다분히 왜곡되거나 굴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잠재하게 된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29).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미지가 정체성의 message라 한다면 그것이 담겨 있는 용기 또는 전달하는 매체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환경요소 중에서 공간적 요소는 인간 자신의 신체가 놓여지고 활동하는 장일 뿐 아니라 그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이 놓여지는 장이기도 하다. 공간이 장소로 전환되자면 의미(meaning)가 주어져야 하며 그 의미는 체험(experience)으로부터 연유한다.

다음은 시간의 추이라는 조건을 들 수 있다. 특정공간에 대한 체험은 그 위치나 외관의 특성 때문에 강력해질 수는 있지만 그 체험이 지속되자면 반복되어야 하며 그 반복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시의 공간은 전체가 하나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각 장소는 고유한 위치와 외관을 보유하고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의 공동체험의 장이 되어야만 그 정체성이 보다 건실하고 든든해진다. 그래서 장소라는 것은 개인의 장소(private place)인 동시에 공공의 장소(public place)라는 양면성을 가지지만,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구현하는 데에는 공공의 장소가 더 중요하다. 이때 장소의 의미라는 것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창출되고

발견된 것이며 재인되고 재생될 수 있는 것이고 지각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도시상을 정립하는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조상이 살아왔고,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잘 알고, 좋아하고, 자랑하며, 삶을 신바람나게 살아 보게끔 해주는 것이다(정주시/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18).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 시민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주시로, 서울로 나갔고 이제 서귀포시에는 서어비스업을 중심으로 외지인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서귀포시의 독자적인 문화풍토가 마련되지 못하고 제주시 중심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피상적인 관광지 몇 군데가 아니라 서귀포시에 대해 잘 알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도시상 정립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그래서 서귀포시를 좋아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더욱 더 열심히 서귀포시를 가꾸게 된다.

이처럼 도시상은 서귀포시를 서귀포시답게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되는 길잡이가 된다.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다와지면 시민들은 도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도시를 건전하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준다.

4) 도시상 정립 방법론

(1) 정체성 구현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

케빈린치는 그의 명저 The Image of City(1960)에서 환경이미지(Environmental Image)를 정의하고 있다. “환경이미지는 개인이 보유하는 외부 물적 세계에 대한 정신적 그림이다. 이 이미지는 즉각적 감각과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산물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환경이미지의 용도는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을 유도하는데에 있다고 한다. 환경이미지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거나 또는 관찰

자가 환경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자와 그 환경 사이에 성립되는 쌍방향적 과정이다. 하나의 환경이미지는 식별(identity), 구조(structure)와 의미(meaning)로 분해된다. 한편 이미지 연구방법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린치는 이와 관련하여 심상가능성(imageability) 또는 可讀性(legi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물리적 요소로서 길(path), 경계(edge), 地區(district), 결절점(node), 지표물(land-mark)이라는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이미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훈련된 관찰자 자신의 현장관찰과 시민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도면 작성, 설문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린치의 연구는 도시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 이미지를 고양하는 계획기법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32-33).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란 “기업정체성계획” 또는 “기업 이미지 통일화계획”이라고 번역된다.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그 기업이 가진 실상과 일반 대중과 소비자가 그 기업에 대해 가진 심상의 두 가지가 있는데 CIP란 바로 기업의 외부환경집단—고객, 소비자, 사회대중, 정부, 경쟁자, 유통기구, 하청업자 등—에 대해 기업의 목표실상과 이미지가 동일하게 투영되게끔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CIP란 비단 대외적으로 수요자에게만 좋은 이미지,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전 사원의 의식개혁 및 단합화로 기업의 실상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도 포함한다.

CIP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시각적 기호화를 통하여 재구성, 조직화하여 강력하고도 통일적 이미지로 바꾸어 수요자가 갖는 집단적 이미지의 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CIP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수단은 기업의 시각적·비시각적 요소를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이미지를 CIP로 포괄할 수 있는 모든 대상품목에 효율적·체

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전체로서 강력하고도 통일된 이미지로 승화시키는 것에 있다.

CIP라는 말은 보통 기업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계획이지만 이를 도시의 정체성을 고양하는 계획인 City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 풀이하여도 좋다. 용어상의 연관성은 개념의 연관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용한데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갖는다.

- 가.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정체성이 중요하다.
- 나. 도시의 정체성도 기업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다.
- 다. 도시의 이미지도 기업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요소와 비시각적 요소로서 구성되며 시각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
- 라. 이 이미지는 모두 개개인의 개별적 이미지이기 보다는 다수 공중의 집합적 이미지이다.
- 마. 기업이나 도시나 시각적·비시각적 요소를 관통하는 하나의 뚜렷한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를 시각적 기호화의 기법을 통하여 재구성·조직화하여 관련된 여러 사물에 적용하여 강력하고도 통일적 이미지가 구축되게 한다.

그러나 도시의 CIP와 기업의 CIP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가. 기업 CIP에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내적·외적 요소에 빠짐없이 적용하고자 하고 또 적용이 가능하지만, 도시 CIP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야 한다.
- 나. 기업 CIP는 구매 행위를 지향하지만 도시 CIP에서는 호의적 태도의 형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호의적 태도의 형성에서 파생되는 시민 행동규범의 정상화, 관광산업의 진흥 등과 같은 행동적 차원의 효과를 노린다.

다. 기업 CIP에서는 중심되는 단일 또는 소수의 기본요소가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으나 도시 CIP에서는 그 구성요소가 복잡하므로 그 디자인 요소도 복수 또는 다수가 될 수 있다.

(2) 정체성 계획방법론 연구

도시정체성계획(City Identity Program)은 시민이나 외래 방문객들로 하여금 어느 도시를 그 도시답게 느끼게 하고 나아가서 그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다르면서도 뛰어난 점이 있다고 느끼게끔 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이 계획의 방법론은 체계적 접근방법에 기초하며, 그 과정은 조사·분석, 목표 이미지의 정립, 이미지의 기획과 실천, 평가,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이 되는 도시환경은 우세한 자연요소, 繼起경관과 집합경관, 가로, 지표물 등인데 이같은 물적요소들은 다시 형태, 행위,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된다.

정체성을 구현하는 汎用的 技法, 즉 그 대상환경이나 이미지의 내용에 무관하게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강조, 조화, 추가, 삭제, 연상 등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조작기법에는 그 대상이 되는 환경을 물적 환경과 비물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대상의 조작 역시 물적 조작과 비물적 조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1992 : 32-40).

도시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먼저 시상이 되는 기초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시상을 형성한 다음 이것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주시 시장정립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서귀포 특성에 맞게 재구성 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① 기초자원의 조사와 분석

가. 서귀포시의 자연, 역사, 문화 등 각종 자료를 도시상이라는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한다.

나. 도시상을 수립하는데에 물적 자원 뿐만 아니라 비물적 자원

까지 조사한다.

다. 도시상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식과 행태 등을 다각도로 조사, 분석한다.

② 도시상의 형성

가. 기초 자료를 토대로 도시상의 내용을 제시한다.

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응을 수렴하여 도시상으로 정립한다.

다. 추상적, 비가시적인 도시상을 구상적,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③ 도시상의 구현

가. 도시의 환경을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도시상 정립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한다.

나. 도시상 구현에 걸맞는 문화관광 코오스를 개발한다.

다. 연중 이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관련된 상품을 개발한다.

④ 실천방안 제시

가. 도시상을 정립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기대한다.

나. 도시상 정립사업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시한다.

II. 도시상에 관한 시민의 의식과 행태³⁾

1. 서귀포로 들어오는 경계 : 어디가 서귀포인가?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들어 오는 길은 한라산 횡단도로 중 하나인 5.16도로(응답자의 51.9%)와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부산업도로(42.5%)이다.

3) 서귀포시의 도시상에 관한 시민의 의식과 행태조사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성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고경미 1993: 51-53)을 참조할 것.

그러므로 서귀포 진입부의 이미지는 서귀포 서쪽 진입과 북동쪽 진입에서 주로 형성된다.

진입 도로는 제주시의 연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신제주 쪽에서는 서부산업도로를 이용하고 제주 구 도심 쪽에서는 5.16횡단도로를 이용한다. 동부산업도로(남조로, 4.7%)는 제주시의 동쪽 화북, 조천 쪽에서 진입할 때 유리한 도로이다.

〈도2〉 가장 많은 시민이 서귀포라고 느끼는 경계

제주시의 특정 연고지와 관련 없이 선호하는 길로는 5.16횡단도로인데 그 이유로는 한라산 중턱의 아름다운 숲터널을 지나며, 수악교를 지나자마자 서귀포의 원경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경관을 즐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서부산업도로의 경우, 길이 평평하여 안락한 편이고 이곳은 만주별관을 연상케한다는 경관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한라산의 많은 오름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이 비교적 싼 편이고 중문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단지로의 관광코스도 주로 이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문 쪽에서 서귀포로 진입할 때 서귀포 경계로 인식되는 지점은 삼매봉초입(여우물 지점, 48.6%)과 그 이전(서쪽)의 수모루(22.9%) 지점을 들고 있다.

옛부터 서호, 호근 마을 주민들은 현재 서귀포 시가지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멀게는 서호, 호근마을을, 가깝게는 삼매봉 입구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섬들의 해안경관을 바라보면서 서귀포로 진입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5.16도로로 서귀포를 진입할 때는 토평(23.9%), 돈내코(16.0%), 법호촌(15.0%), 서귀농고와 동문로타리(14.1%), 수악교(10.3%)로 나타나 서귀포 북동쪽 진입부의 경계 이미지는 그리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북동쪽 진입시 경계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라산 중턱을 넘어오면서 처음 서귀포 해안선과 섬들의 원경이 보이는 수악교 지점을 경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시가지 구역의 경계 이미지는 동서 양쪽 내(선반내, 애이린내)를 건너면서부터이다. 여기에서부터는 과수원과 삼나무 터널을 벗어나는 지역이고 특히 시의 서쪽 진입시 처음 나타나는 대형 건물 포도당공장과 동쪽의 선경 오피스텔은 도심이미지의 중요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가지 내에서의 주요지점(Landmark)로는 중앙로타리(1호광장), 서문로타리, 동문로타리를 가장 보편적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로는 동명백화점과 초원다방 네거리를 들고 부두와 천지연, 정방폭포를 빼놓지 않고 있으며 멀리는 허니문하우스까지를 꼽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서귀포시

의 행정상의 경계와는 별도로 실제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도시에 대한 경계부가 확실하면 도시에 대한 인지가 강하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5.16도로의 수악교 부근의 도로나 서호마을 입구에 식별성을 높이기 위한 특징적인 표식물(안내판, 상징물, 가로수 계획) 설치와 소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서귀포 시가지 환경 : 동네와 길

서귀포 시내의 옛 이름으로는 지금도 남아있는 선반내 명칭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솔동산과 호근의 솔왓동산, 자구리, 막동산, 소낭머리, 지장샘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구린새끼, 국박거리, 빌랫동네, 소금악, 수모루, 뒷병디, 굴왓디 등의 명칭을 떠올리고 있다.

서귀포 중심 시가지의 교통 환경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2차선인 중심도로의 차선을 더 늘리자는 의견(응답자의 34.0%)이 많았고, 협소한 시가지 교통환경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22.3%)과 인도나 이면도로에 차량진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18.5%) 등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 출신 운동선수가 카퍼레이드를 한다면, 응답자들은 카퍼레이드 코오스로 주로 서귀포 시가지 안의 동문로타리, 서문로타리, 초원다방 사거리, 동명백화점을 거쳐 중앙로타리(1호광장)를 처음이나 끝으로 하고 있다. 시청앞을 거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서귀포 시청의 중심성은 타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가로는 중정로, 즉 동문로타리와 서문로타리를 잇는 길과 중앙로를 들고 있다. 시가지 경계를 이 세 로타리로 보는 것이 대부분 견해이며 이 세 로타리 밖의 코오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론하고 있지 않다.

서귀포시의 길이름은 대부분 행정적으로 붙인 딱딱한 이름이다. 길 이름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없다. 길 이름으로는 송산로, 중앙로, 서문로, 동문로, 정방로 등이며 대부분 다른 도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 길 이름으로는 서귀포를 떠올리기 힘들다.

거닐고 싶은 길은 천지연폭포로 들어가는 길(천지연길, 66.8%)과 정방폭포로 가는 정방로(17.1%), 부두로(5.9%) 순이다. 이 세 길은 부두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길이다. 대부분 천지연폭포로 이어지는 길의 야경을 선호하고 있고, 풍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천하고 있다.

길 이름은 외부인들이 갖는 시상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위의 조사결과를 볼 때, 특히 역사성이 있는 길을 찾아내고 거기에 독특한 명칭을 만들어 주는 작업은 그 지역의 장소성을 높여주는 좋은 방안이다. 또한 현재 서귀포 시가지 길은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환경의 불편만 개선되면 전체가 다 훌륭한 보행길의 잠재력을 갖는다. 특히 바다와 면한 길은 보행로만 만들어 주어도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다. 현재 동백은 가로수로 더러 심어져 있지만, 특히 서귀포 지역에 만 있는 독특한 담팔수를 가로수로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동백은 시 지정 나무이지만 그에 비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3. 서귀포의 관광지

1) 자랑할 만한 곳

다른 지역에서 놀러온 친구나 친척에게 서귀포를 구경시켜 줄 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는 허니문하우스와 천지연폭포, 문섬, 범섬, 섯섬 등의 해안경관의 순으로 많이 꼽고 있다. 그다음 정방폭포, 프린스 호텔 전망대, 외돌개, 황우지 12굴, 오일시장 등을 꼽는다.

서귀포가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점들로는 폭포와 섬들로 이루어진 수려한 해안경관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그다음 서귀포 시내 어디에서나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따뜻한 날씨 등을 꼽고 있다. 서귀포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사면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현재 고도제한이 제주시 보다 더 강하여 서귀포시 어디에서나 바다를 조

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한라산 남사면에 위치해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따뜻하다는 것이 강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서귀포의 절벽 해안은 주로 허니문하우스에서 많이 감상하며(59.5%), 그 다음 프린스호텔 전망대(13.0%)에서, 그리고 직접 유람선을 타고 나가서 보는 경우가 11.0%이다. 또한 정방로 남쪽의 소낭머리(5.0%)와 외돌개 동쪽 바위인 동너분덕(2.5%)에서도 감상하고 있다. 바다에서 시가지를 바라 보지 않더라도 허니문하우스나 프린스 호텔에서 보는 해안 경관은 서귀포 해안의 훌륭한 단애를 더욱 가까이서 바라 보게 하는 각도를 지니고 있다. 이 점 때문에 바다 위에서가 아니라 해안 절벽 위에서 다른 쪽 돌출한 절벽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이 경관은 관광객이 아닌 시민들이 자주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의 각 지점에서 바라보는 해안경관을 서귀포 시민들은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해안을 늘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서귀포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해안 경관을 부각시키고 이를 방해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환경 개선의 지침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서귀포의 해안 경관을 인간의 정서와 연관시켜 노래한 '서귀포칠십리'라는 노래가 애창될 정도로 서귀포의 경관적 특징은 뛰어나다. 노래는 타지에서도 서귀포를 떠올리는 중요한 상징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노래를 기리는 상징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어릴 적 늘 가까이 뛰놀던 냇가와 바닷가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은 그 고장을 바람직하게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반내와 소낭머리, 동너분덕 등의 맑은 물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오염된 물과 바다를 옛날처럼 맑게 하는 도시환경 오염 방지와 그 관리 계획을 기본 방향의 하나로 설정한다.

현재 호텔 시설로 전유되고 있는 지점에서의 경관이 훌륭하다. 호텔 시설의 일부로 되어 있는 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진입이 어렵다. 특히

프린스 호텔의 전망대는 독점적이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의 해안 경관은 어느 지점에서든지 누구든지 감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 못 마땅한 점

보여주기 싫은 곳으로는 요정으로 쓰이고 있다는 탐라성과 목화백화점 주변의 시장가와 유흥지대를 많이 꼽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서귀포시에서 보여주기 싫은 곳이 없다는 응답이 29.0%나 차지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시장길, 유흥가 등이 모두 서귀포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가치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른 곳보다 나쁜 점으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을 가장 먼저 꼽는 이가 많았고 대형건물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많이 들고 있다.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는 인구지표를 높게 잡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것과 문화이벤트를 많이 유치하여 문화적 관광지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고, 또한 체계적인 관광홍보가 미흡하고 관광부조리 등이 횡행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서귀포시의 못마땅한 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귀포의 대표적 이미지로 꼽히고 있는 폭포의 수량이 현저하게 줄고 수질 오염이 심하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 온다. 환경조성으로서의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가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환경오염이 덜한 지역이라 하여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행정적으로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시 전체의 보행환경이 특히 열악하다. 비교적 높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차량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도로 사정은 변함없이 없고 인도까지 차량이 밀집하여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의식있는 토박이들은 도로의 확폭보다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거나 차량진입을 금지하여 보행전용 도로화하는 것을 내놓고 있다. 시가지의 교통환경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현재 서귀포시립 기당미술관과 예술회관이 있지만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 누구나 문화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지만 현재 있는 시설의 이용 또한 높지 않다. 현재 시설의 소극적인 홍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서귀포 주변 경관이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문화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유치하는 것은 무관심한 대중을 참여하게 하고 그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4. 서귀포의 상징

1) 도시의 이름과 별명

서귀포라는 명칭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40.0%). 그 다음으로 포구라는 느낌의 촌스러움과 소박함이 양면성을 가지고 다가온다.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점에서 바다와 연관된 낭만성을 자아낸다.

서귀포라는 지명의 유래로 진시황의 명에 의해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徐市過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39.5%). 이 전설을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진시황이나 불로초와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43.7%나 된다.

서귀포시의 별명으로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붙인 경우가 가장 많다(38.8%).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 서귀포', '폭포의 도시, 해녀의 도시, 감귤의 도시', '폭포의 도시, 전원의 도시', '낭만과 환상의 도시', '한국남단의 이상향' 등을 별명으로 꼽고 있다. 또한 옛부터 붙여졌던 '남주금강(南州金剛)'이라는 별명도 있다.

이상의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

귀포라는 명칭은 여느 도시와 달리 독특하다. 또한 훌륭한 전설까지 지니고 있다. 서귀포 시청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정방폭포 암벽에 새겼다는 ‘서불과차’라는 글을 정밀탐사를 통하여 찾아 보았지만 없기 때문에 사실로는 무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진상 규명 차원보다는 전설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시황과 관련된 이러한 전설이 사대주의 사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느낌 만은 아니라고도 하고 있다.

별명으로는 ‘파라다이스’, ‘낙원’, ‘남국’, ‘남만’, ‘환상’, ‘폭포’ 등의 명칭이 주요어로 사용된다. 남만과 환상이라는 명칭은 관광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책자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남주금강, 서귀포’라는 별명과 ‘남국과 남극노인성, 서귀포 칠십리’를 연결시킨 별명을 개발할 수 있다. 서귀포에 대한 별명을 붙임으로써 그 곳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먼저 부각시킬 수 있다. 유명하고 오래된 동네를 이미지와 연결하여 역사성도 일깨우면서 외부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관광 루트로 활용할 수 있다.

2) 이미 있는 시상

서귀포시의 시화(市花)로는 철쭉이 27.9%, 밀감꽃이 19.8%, 동백이 17.1% 순으로 나왔다. 현재 시화는 한라이지만(11.7%) 그 이미지가 그리 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철쭉 또한 한라산 철쭉제 등이 있어 좋은 예가 되지만 서귀포 고유의 것으로는 그리 강한 성격을 갖지 못한다. 밀감꽃을 새로운 시화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시목(市木)으로는 동백이 36.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담팔수(20.3%), 감글나무(14.8%) 등의 순이다. 현재 시목인 동백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백은 주로 관청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을 뿐 전용 가로수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시조(市鳥)로는 동박새가 65.0%, 그다음으로 딱따구리, 비둘기, 제비 등을 꼽고 있다.

서귀포 시민의 노래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31.5%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68.1%에 달한다. 서귀포시의 기념품으로는 독자적인 것이 없다는 의견이 22.8%이나 나왔고 밀감이 51.0%, 돌하르방과 옥돔을 그 다음으로 꼽고 있다. 서귀포를 대표할 만한 독특한 음식 역시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의견이 23.9%로 나왔고 다음으로 해물탕, 자리물회 순으로 꼽고 있다. 서귀포를 상징하는 대상물로는 감귤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폭포가 있는 풍경, 다음으로는 따뜻한 날씨를 꼽고 있다.

응답자들의 답변내용을 볼때, 서귀포에서 독특한 담팔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동백꽃과 관련이 있는 동박새 이미지도 좋은 시상을 형성할 수 있다.

특산물이나 기념품으로는 제주도와 구별되는 서귀포만의 독특한 요소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특산물로서 감귤을 서귀포 지역의 독특한 상품으로 개발하여 시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폭포의 이미지와 따뜻한 날씨 즉 남국의 이미지는 시상으로 활용할 만한 중요하 요소가 되고 있다.

3) 서귀포를 상징하는 비물적 시상

〈서귀포 칠십리〉에 대해 대부분 잘 알고 있거나(21.7%) 들은 적이 있었다(42.5%). 또한 옛 대중가요도 조금씩은 모두 알고 있다. 남극노인성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다(86.2%).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상서로운 별이라는 상징적인 내용 역시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서귀포 칠십리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칠십리 해안길이라는 명칭이다. 이것은 옛 대중가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래까지 알고 있다. 서귀포를 〈南州金剛〉과 함께 〈서귀포 칠십리〉라는 별칭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서귀포시의 유일한 공원인 삼매봉 공원 정상에는 남성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부근에는 남성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 정자는 남극노인

성을 기념하는 것으로 남성정이라는 시액까지 새겨져 있다. 특히 옛 서귀진에서 남극노인성이 보인다는 것은 서귀포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질 정도의 긍지를 심어주었다. 현재 대부분 남극노인성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남쪽을 향한 끊임없는 동경과, 희망을 심어주는 별로서 무병장수를 의미하는 점은 불로초를 구하러 한라산을 다녀가게 한 진시황의 무병장수의 의도와 맞아 떨어져 훌륭한 시상 자원이 된다.

5.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서귀포를 더욱 훌륭하고 알려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시급한 일로는 우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23.7%)이 가장 많았고, 서귀포 시가지의 교통환경 개선이 19.9%이고, 그다음으로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이벤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18.3%, 타 도시와 비슷한 차원을 뛰어 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귀포시민이 더 친절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서귀포시 고유한 기념품을 개발하여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를 더욱 훌륭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장, 공연장, 놀이시설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지원을 늘려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니라 보고 참여하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발일변도의 사고를 지양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방향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와 같은 방식의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독특한 서귀포 경관을 해치는 위협요소라는 점에서 대체로 동일한 의견이다.

우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여 보전하는 것이 우선시되며, 타 지역과 같은 개발은 지양하고 ‘서귀포답게’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체류형 문화관광이라는 개념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해나가는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Ⅲ. 도시상의 형성

1. 도시상 형성 방법론

앞에서 현장과 문헌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시상 자원들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시상을 구성한다. 물적, 가시적 자원과 비물적 무형적 자원들을 통합하여 일련의 줄거리를 구성한다. 이렇게 일련의 줄거리를 구성함으로써 각 시상 요소가 이야기처럼 서로 물고가는 연상 역할을 하게 하여 시상의 효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1) 지형요소

- ① 바다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해안단애
- ② 바다를 배경으로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섬
- ③ 바다로 내려가는 급경사지 위 서귀포시가지
- ④ 가까와서 한결 포근한 한라산

2) 자연요소

- ① 감귤밭의 늘 푸른 빛과 삼나무 방풍림 터널
- ② 마파람과 떼까마귀
- ③ 늘 푸른 서귀포 자생목 담팔수
- ④ 무병장수를 비는 남극 노인성
- ⑤ 봄을 재촉하는 동박새 우는 소리
- ⑥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시러미

3) 기타 시상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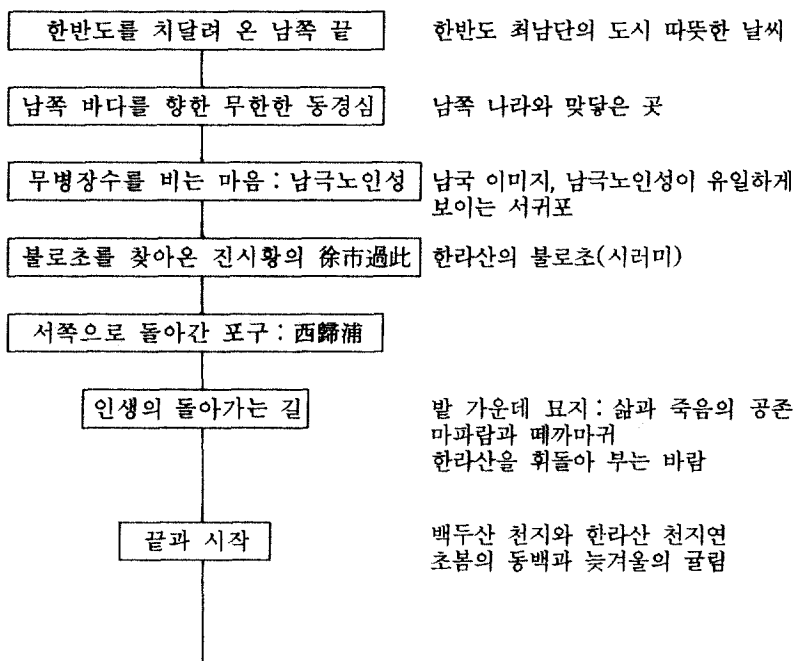
- ① 숫자
 - 셋(3) :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의 세 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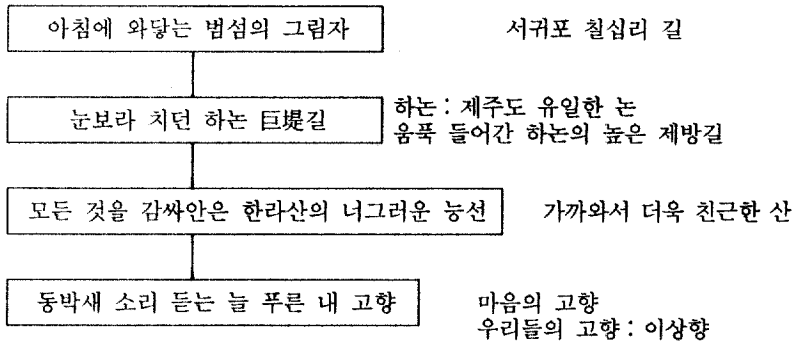
· 일곱(7) : 서귀포 칠십리길

- ② 색채 : 노란색(감귤)과 파란색(바다), 그리고 늘푸른 녹색
- ③ 정서 : 남국, 동경, 너그러움, 자연순응
- ④ 인간 : 역센 여성(힘세고 역센 여성이 덕으로 여겨지는 사고)
- ⑤ 역사요소 : 4.3사건과 먼나무
- ⑥ 문화요소 : 서귀포 칠십리

2. 도시상의 구성

각 도시상 요소를 하나의 줄거리로 엮어 도시상 효과를 꾀한다. 서귀포적인 시상요소를 모아 정서적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도시상의 내용

도시상의 내용을 시상과의 관계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앞에서 구성한 줄거리를 각 단면 별로 풀어 설명한다.

1) 한반도를 치달려 온 남쪽 끝

(1) 지형지세와 시상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자연환경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제주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과도 다른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귀포는 남단의 섬 제주도의 한라산을 또 넘은 남쪽 끝에 자리잡은 작은 항구도시이다.

이런 자연환경 즉 지형지세만 가지고도 이 곳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반도 최남단의 도시

백두산으로부터 치달려온 한반도의 산맥이 바다를 만나 한껏 멀리뛰기 하여 뛰어 내려 앉은 곳이 바로 한라산 즉 제주섬이다. 대륙의 험찬 기상을 담고 있는 치달려온 한라산, 이 한라산의 남쪽, 우리나라

최남단의 도시가 바로 서귀포시인 것이다.

(3) 사다리꼴의 서귀포

서귀포시의 지형지세는 한라산의 남쪽 자락, 선반내(숯밭내)와 애이린내에서 떨어지는 천지연 폭포와 정방폭포 사이에 자리잡은 형상이다. 이를 사다리꼴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이 사다리꼴은 한라산 꼭대기까지 펼쳐져 있고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가로 받침대가 상жат, 중жат, 하жат(현재 하жат의 자취가 돌담으로 남아있고 이 잣성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었다)에 비유할 수 있고 옛 서귀진의 규모로 보아 사다리꼴의 세로 지지대가 선반내와 애이린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다리꼴 형상은 우뚝 솟은 한라산과 태평양을 향해 난 남쪽 바다를 연결시키는, 힘찬 제주인의 기상과 남국을 향한 정서를 묘하게 이어주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

서귀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 한겨울에도 눈을 거의 볼 수 없고 단지 북쪽의 한라산의 잔설이 겨울을 알려줄 뿐이다. 겨울에도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한라산 이북에 자리 잡은 제주시와 비교하여도 기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비도 제주시 보다 더 많이 내리고 반면 맑은 날도 제주시 보다 많은 편이다. 거의 볼 수 없는 눈도 제주시 보다 더 늦게 내리고 더 일찍 그친다. 기온도 연평균 기온으로 섭씨 1도 이상의 차이가 있다. 서귀포 시민 누구나 서귀포의 따뜻한 날씨를 자랑한다.

(5) 시상의 효과

한라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귀포시의 북쪽을 막아주고 있다. 서귀포는 큰 산 아래서 늘 아늑하고 포근한 도시이다.

한반도의 대맥이 남해를 뛰어 넘어 내달은 곳 이곳 서귀포의 한라산은 서귀포시민의 엄마 품 역할을 한다. 이 한라산은 아름다운 오름과 맑은 계곡을 이루면서 서귀포의 생활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한라산은 한반도의 산 중 으뜸을 담당해내고 또한 외로이 떨어진 섬에서의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해내고 있다. 대륙을 대표하는 한라산과 남국을 나타내는 해양성 기운, 이 두가지를 하나로 엮어내는 곳이 이곳 서귀포이다.

또한 이곳은 제주도에서도 한라산을 북쪽으로 두고 남쪽의 광활한 태평양을 면한 지세가 풍수지리적으로도 뛰어난 곳이라 하겠다.

2) 남쪽 바다를 향한 무한한 동경 : 남쪽나라와 맞닿은 곳

이 한라산 남쪽 해안은 이제 한반도를 등지고 남국을 향해 뻗은 태평양을 동경하는 바닷가이다. 아름다운 섬들로 이루어진 남국 정서까지 담고 있다. 대륙적 기질과 남국의 정서를 함께 담고 있는 시상이다.

서귀포 사람들에게 남쪽 바다는 제주도민들의 파라다이스인 이어도가 있는 바다이기도 하다. 척박하고 모진 제주 땅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제주도민에게는 꿈의 낙원, 이상향, 파라다이스가 없고서는 이승을 살아갈 수 없었다. 강남 간 제비가 살고 있는 남쪽 나라, 평화롭기 그지 없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초월한 곳이다.

남쪽 나라를 향해 난 서귀포시민의 원망은 남극 축에 잠깐 뒹다가지는 별을 향해 모아진다. 인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이 그것이다.

3)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 : 남극 노인성

(1) 서귀진에서만 볼 수 있다는 남극노인성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은 남극성, 노인성 등으로 부르는 별로서 아르고(Argo) 자리의 첫 별이고 광도가 가장 높은 카노푸스(Canopus)별

이다. 이 별이 보이게 될 때에는 나라가 편안해지고 군주의 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보이지 않게 될 때에는 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711).

중국에서는 이 남극노인성의 출현을 기다려 노인성제를 올렸다. 도교계통의 노인성제에서는 아르고 자리를 남두(南斗)라하여 경배 대상으로 삼아 도교의식을 행하여 기복을 축원하였다. 노인성제는 이 남두에 대한 제례로 남극장생대제를 포함한 칠성군(七星君)에 제사 드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 올라 남극의 노인성을 굽어 보면 크기가 셋별같고 하늘의 남극 축에 있어 땅 위에 나오지 않은 별이라는 기록이 있다. 만일 땅 위에 나타나면 인수의 상서러움으로 오직 한라산 및 중국의 남옥(南獄)에 올라서야만 이 별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제주 사람들의 장수가 이 노인성이 비추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남극 노인성은 오직 봄 가을 춘, 추분 때 천지가 아주 맑은 때 절반 정도만 보인다고 한다.

의종은 지나칠 정도로 노인성제에 열중하여 직접 내전에서 초제(醺祭)하거나 태자를 시켜 초제하도록 하였고 대신들까지 동원하여 제사를 드렸다. 1170년 의종은 노인성을 친히 초제하기 위하여 진관사 남쪽 기슭에 노인당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의종은 이토록 장수를 기원하여 노인성제를 올렸다.

(2) 서귀진의 남극노인성

제주도에서는 최남단의 도시 서귀포의 서귀진(西歸鎭)에서만 이 노인성이 보인다 하여 길하여 여겼다. 서귀진은 현재 송산동 서귀국민학교 앞 제일장로교회 부근으로 옛 성의 자취가 흩어진 바위조각 정도로만 알 수 있다.

현재 남극노인성과 관련한 지명으로 삼매봉 남쪽 마을인 남성리(南星里), 삼매봉 정상의 정자인 남성정(南星亭)에 남아 있다. 삼매봉 정

상의 남성정은 서귀진이 자취를 감춘 후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새로 만들어 진 곳이다.



〈도3〉 서귀진(西歸津)과 남성정(南星亭)

4) 불로초를 찾아온 진시황의 서불과차(徐市過此)

제주도에는 시러미차가 특산차로 알려져 있다. 시러미라는 풀이 진시황이 원했던 무병장수를 가져온다는 불로초였을 것이라고 한다. 시러미는 술로 담가져서 한라산 시러미술로 부르기도 한다.

진시황은 자신의 무병장수를 위해 충북 서불로 하여금 한라산의 불로초를 캐어 오라고 보냈다. 서불은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서귀포구를 지나 서쪽으로 돌아갔다. 서불은 자신이 이곳에 왔다 갔노라고 현재 정방폭포 암벽에 ‘徐市過此’라는 글귀를 새겨두었다.

서불이 이곳을 지나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에 의해 이곳은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뜻의 ‘西歸浦’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불이 진짜 중국으로 돌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 자신이 동쪽으로 숨어들어간 것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이곳 암벽에 자신의 행적을

새겨놓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5)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 西歸浦

어쨌든 서귀포는 그 명칭에서부터 중국 진나라 시황의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원망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서귀포의 어원을 기원 전으로까지 끌어 올리고 있고 서귀포의 역사성을 설명하는데 좋은 소재가 된다.

진시황의 무병장수에 대한 염원은 이곳 서귀진에서만 볼 수 있다는 남극노인성의 무병장수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불로초와 관련된 서귀포, 남극노인성과 관련된 서귀포 이 두가지 의미에서 서귀포는 불로장생,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곳이 된다. 또한 빼어난 한라산과 아름다운 해안 풍경은 모두 어우러져 낙원, 이상향으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서불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돌아갔다. 한반도의 제일 남쪽 끝 태평양을 면한 서귀포의 지형적 특징은 모든 것이 이곳으로 왔다가 어디론가 돌아가는 곳으로서 의미에까지 닿는다. 불로초를 찾아 왔다가 돌아가는 곳,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이곳 서귀포는 다시 어디론가 돌아가야 한다는 숙명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6) 인생의 돌아가는 길

(1) 발 한가운데의 묘지 : 삶과 죽음의 공존

제주에서는 돌담으로 구획된 밭과 그 한가운데에 곱게 봉분이 올려져 있는 묘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척박한 돌밭은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고 꼭 그만큼이나 척박하여 뼈가 바스러지도록 돌을 골라내어도 언제나 그대로인 돌밭, 이밭을 죽도록 일구며 제주인의 일생이 다 한다.

죽은 후에도 자신의 육신을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후손들의 일터인 밭에 묻어 척박한 흙을 조금이라도 비옥하게 하는데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제주인의 삶이고 죽음까지도 후손들의 삶터에 도움을 주고 또한 그 삶 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공존의 미학이다.

거칠은 현무암의 날카로운 직선면은 돌담으로 쌓아올려져서 아름다운 곡선을 형성하는 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척박한 돌밭에 묻혀 그대로 돌흙으로 둥글게 덮혀진 묘지 또한 척박한 고운 곡선을 만들어 내는 한스러운 미를 느끼게 한다. 묘한 조화요, 아름다움이다.

(2) 까마귀

동지 전후로 철새가 많이 날아든다. 직박구리, 오색 딱따구리, 콩새, 동박새, 도요무리, 말뚝가리, 떼까마귀 등.

떼까마귀는 바람까마귀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한 판 휘젓고 지나면 센 바람이 불어온다. 구름 한 점 없는 찬 겨울, 하늘에서의 떼까마귀의 원무(圓舞)(오성찬 1984).

(3) 마파람과 모자반

모자반은 비료나 거름 대용으로 고구마 묘판 만들 때 고랑에 깔아 놓는 해산물이다.

마파람이 불고 나면 바다에 해물들이 많이 쓸려 올라온다. 해녀들은 마파람이 불고 나서 바다가 잠잠해지면 물질을 나서기 시작한다.

(4) 한라산을 휘돌아 부는 바람

제주시에서는 북북서로 불던 바람이 한라산을 휘돌아 서귀포에서는 북북동풍으로 바뀐다. 북서풍이 한라산과 마주쳐 서북서풍으로 조금 누그러져 불어온다. 삼월의 동풍은 한라산을 휘감고 북북서풍이 되기도 한다. 여름의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에는 북동풍으로도 분다.

제주의 바람은 척박한 제주의 돌밭과 함께 제주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녀의 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택의 지붕까

지 잡아매 놓게 한다.

한라산을 휘돌아 부는 덕택에 서귀포의 바람은 제주시의 그것보다
는 한결 누그러든다. 평균 풍속이 2~3m/s 정도로 약하게 분다.⁴⁾

7) 끝과 시작

(1)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천지연

한라산 남쪽 기슭 선반내(숫발내, 淵外川)는 맑기로 유명했다. 한라
산이 제주도를 지배하는 산이듯, 선반내는 하늘을 휘돌아 서귀포로
떨어지는 천지연 폭포를 이룬다. 선반내에선 동네 아이들이 모여 먹도
감고 깨끗한 물 속에 비쳐 보이는 민물고기도 잡곤 하였다. 내 아래가
폭포니까 해엄 잘못 하면 떨어져 죽을 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모험심
같은 불안감도 안고서.

서귀포 천지연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다. 하늘에서 내
리는 맑은 물이 이곳 땅으로 떨어지는 폭포로 깊이 패어져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무태장어가 살고 있다. 폭포 주위에는 상록수들이 울창하
게 우거져서 계절에 따라 다른 맛을 자아낸다. 여름에 물줄기는 사람
들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겨울에는 포근하다.

여기서 내리는 물은 다시 내를 이뤄 서귀포항까지 약 1km를 내려
간다. 이 내는 양쪽의 깊은 계곡을 이뤄 서귀포 고유한 풍취를 뿜어
낸다. 이곳에 있는 담팔수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제주도 유
일한 자생지이다.

(2) 초봄의 동백과 늦겨울의 귤림(橘林)

끝과 끝은 통해서 일까? 서귀포처럼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곳도 드물 것이다. 제주도 어느 곳 보다도 따뜻한 서귀포에서는
가을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여 한겨울에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이

4) 제주시의 1월 평균 풍속은 1991년이 4.6m/s이지만, 서귀포시의 1월 평균
풍속은 2.8m/s이다. 2월은 5.1m/s(제주시), 3.1m/s(서귀포시) 등의 추세이다
(제주도, 1992, 「제주통계연보」).

한창일 때, 벌써 봄을 알리는 빠알간 동백꽃이 피기 시작한다.

한겨울의 서늘이 내릴 때에도 동백은 흰 눈을 맞으며 자태를 내보이고 있다.

동백은 초봄을 알리기 위해 한겨울에 꽃 피우기 때문에 겨울 철새 동박새 만이 동백의 꿀을 찾아 준다. 겨울의 상징인 노란 감귤과 봄을 알리는 동백은 한데 어우러져 서귀포의 겨울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8) 아침에 와닿는 범섬의 그림자

(1) 서귀포 칠십리길

일찌기 서귀포 칠십리길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다. 제주목(濟州牧)에서 한라산을 넘을 때 한라산 정상에서 서귀포까지가 칠십리라 하였다. 또 옛 읍성인 정의골에서 서귀포까지가 칠십리이고, 대정골에서 서귀포까지도 칠십리 길이라 하여 서귀포 칠십리라 하였다. 서귀포를 중심으로 양쪽에 기암절벽이 칠십리에 펼쳐져 있어 칠십리라 하였다. 또 서귀포에서 서귀포 앞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시계(視界)가 칠십리라 한다.

육천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매우 길다는 표현으로 '만리'라 하였으니 칠십리라는 수치는 서귀포의 아름다움을 숫자를 빌어 표현한 것이라 한다.

서귀포 칠십리라는 수치의 정확한 어원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제주도에서 수치를 빌어 서귀포의 자리를 표현하는데 칠십리가 딱 들어 맞는다. 또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 보는데 수치로도 칠십리가 제격이다. 칠십리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서귀포 토박이들에게 풍겨 나온다.

(2) 범섬(虎島)

서귀포 앞바다의 새섬, 문섬, 섯섬, 범섬 등은 서귀포 바다의 절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라산을 넘어 오는 5.16도로에서 물이 보

이는 오름이라 해서 불려지는 수악을 지나면 멀리 서귀포와 바다 그리고 섬들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 온다. 아름다운 서귀포 칠십리를 멀리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범섬은 가까이서 보는 섬의 형상이 빼어나 현재 관광유람선도 다니고 있지만, 옛부터 서귀포 인근 동네 이름으로 범섬이 가깝다 해서 붙여진 ‘호근(虎近)’, 범섬의 서쪽에 있다 해서 붙여진 ‘서호(西虎)’ 등의 지명에서도 범섬을 기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 서호나 호근에 살던 주민들에게 범섬은 언제나 삶의 일부로 느껴졌다.

눈 감아도 보이는 범섬, 아침에 창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면 다가오는 범섬의 그림자 등이 범섬을 표현하는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다.

9) 눈보라 치던 하논 거제길 : 제주도에서 유일한 쌀 생산지, 하논 크고 넓은 논이라 하여 붙여진 하논은 주위에 비해 움푹 파여져 거친 현무암 흩이지만 그럭 저럭 물이 고인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벼농사를 하고 있다. 기후로 보면 벼농사가 딱 들어 맞지만 지질 조건이 그렇지 못하여 제주도 하면 돌담으로 구획된 돌밭 만이 떠오른다. 서귀포가 따뜻하고 빛 좋은 곳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다.

하논은 선반내 서쪽에 약 15만평 정도 되는 둥그런 분지이다. 주위에는 10~20미터 정도 높이의 큰 제방이 자연 상태로 솟아 있다. 동네 어린이들은 이 거제(巨堤)길을 달리면서 놀았다. 겨울의 이 길은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바람이 분다.

하논 한가운데에는 둥글게 솟아 오른 보로미가 있다. 인근 각시바위가 학이 부리를 들고 있는 형상 같다 하여 학수암이라 부름과 동시에 그 학이 하논 가운데에 알을 놓아 둔 것 같다 한다. 보로미란 보름달 같이 둥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0)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한라산의 너그러운 능선

(1) 서귀포에서 가장 가까운 한라산

한라산은 약 2만5천년 전까지 화산 활동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한다. 역사 이후에도 화산 활동은 계속되어 화산 활동기의 마지막 화산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제주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생화산들인 오름이다.

한라산은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보인다. 한라산을 보는 사람에 따라 한라산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제주도 북쪽 제주시 부근에서 한라산을 보면, 하늘로 치솟은 봉우리와 그 바로 밑으로 깊게 패인 계곡이 그대로 드러나 험준한 산세를 느끼게 한다.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보면 제주시에서 볼 때와는 아주 다르다. 서귀포 시내가 산 쪽으로 비교적 심한 경사지에 놓여 있고 시가지 바로 뒤에서 부터 한라산 고도가 급상승한다. 한라산 몸체가 바로 사람들 앞에 있는 듯하여 산이 아주 가깝게 보인다.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은 가까워서 더욱 친근해 보인다. 늘 한라산을 바라보며 어머니 품 같은 포근함 속에서 한라산이라는 자연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2) 세 부악(斧岳)이 뚜렷한 한라산 정상

서귀포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은 세 부악을 볼 수 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제주 사진을 보면 어디서 찍은 한라산 모습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 부악은 서귀포 중문에서 가장 정면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세 부악을 보면 친근한 고향이 연상되는 서귀포 사람들, 서귀포 토착 화가 변시지 선생은 한라산의 세 부악을 강조하여 그리고 있다.

11) 동박새 소리 듣는 늘 푸른 내 고향

(1) 동박새 소리

한겨울 감귤이 노랗게 익어갈 때 빨간 꽃을 피우는 동백꽃은 철이

일러 벌과 나비가 찾아와 주지 않는다. 동백만 유난히 찾아 동백 꿀을 열심히 모으는 철새가 바로 동박새이다. 동박새는 참새 만큼이나 혼한 서귀포 텃새이다.

늦겨울 붉게 핀 동백꽃을 찾아 한라산 골짜기를 떠나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 어귀에 날아든 동박새가 “호오개 교육” 하고 울 적마다 동백꽃이 한 송이씩 피어나고 매웁던 하늬바람이 조금씩 동쪽으로 쫓겨간다고 한다. 봄이 온다고 알리는 것이다.

(2) 늘 푸른 마음의 고향

한라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푸른 태평양을 바라보는 서귀포, 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매서운 바람과 척박한 땅을 한결 누그러뜨리는 서귀포, 서귀포 사람들에게 서귀포는 따뜻한 마음의 고향이다.

최근 들어 타지 사람들이 제주도에 정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살기 좋은 서귀포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직은 환경 오염이 덜한 곳, 아름다운 자연이 숨쉬고 있고 넓디넓은 바다가 가까이 있는 서귀포를 찾아 오는 서귀포 출신들, 뿐만 아니라 육지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과 물이 이상적으로 만나 어우러진 곳, 제주인의 고달픈 삶에 이곳 서귀포는 바다위에 떠 있는 상상의 섬 이어도를 끌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매봉 정상에서 서귀포 시가지를 조망하고 남극측에 잠시 떴다 사라지는 남극노인성을 바라보며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 해안에 펼쳐진 아름다운 서귀포칠십리를 경이의 눈으로 감상하고 늦겨울 서설이 내린 동백꽃을 찾아드는 동박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세상 봄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 이제 서귀포는 넉넉하고 복받은 이상향으로서 모든 이에게 알려지고 또 그렇게 가꾸어 지는 것이다.

Ⅳ. 도시상의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

1. 도시상 정립을 위한 주요사업

시상을 구체적인 도시환경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는 시상이 이제껏 이미지나 추상적 경관으로 나열하였던 무형적 요소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물적요소, 두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상 정립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서귀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1) 길 이름 붙이기

서귀포의 옛 동네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모루, 솔왓동산, 자구리, 소낭머리, 동너분덕, 구린새끼, 솔동산, 뒷병딤, 굴왓디 등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으로 정한 동네의 명칭은 주로 한자어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동네 이름은 동네이름대로 부르지만 동사무소 명칭으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솔동산이 松山洞 등이다.

또한 중앙로타리, 동문로타리, 서문로타리, 1호광장, 2호광장, 3호광장 등의 이름은 어느 도시에나 똑같이 부르는 명칭으로 딱딱하고 특징이 없다. 비슷한 명칭으로 명동이라는 이름은 대부분의 도시 중심에 있다. 제주시에도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 등의 명칭이 있어서 그 명칭만으로는 어느 도시인지 구별이 안된다.

길의 이름을 그 동네 고유의 명칭을 따서 붙이는 작업부터가 도시상의 출발이다. 이는 그 동네 만이 갖는 독특한 이미지를 그 이름으로 대상화되어 동네 이름만 떠올려도 그 독특한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장소성의 출발인 것이다.

(1) 기존의 길 이름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 중정로, 대신로, 정방로, 태평로, 부두로

(2) 새로 짓는 길 이름

새섬길, 지장샘길, 선반내로타리, 애린내로타리, 중앙광장, 구룡사길, 파초길, 담팔수길, 동백길, 금강로, 남주로, 솔동산길, 여우물길, 물오름다리 등

2) 경관 보존을 위한 조례 제정

(1) 경관영향평가제 도입

제주도 개발 특별법은 제주도 지역의 경우 경관영향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개발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의견으로 여러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건축조례개정을 놓고 의회 의원들은 주택난 완화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도제한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시 발전에 중대한 안건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고도제한은 각 도시 사정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주도의 해안경관은 산악 경관이나 중산간 초지경관 등에 비해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경관이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생활자원과 동시에 생산자원이 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해안지역의 환경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해안환경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확고한 지침이 주민들 중심의 의지로 시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서귀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해안경관의 가치와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개발의 사적 이해관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2) 바다 및 한라산 경관 보존을 위한 고도제한 설정

현재 서귀포시의 경우 상업지역은 30m, 준주거지역은 20m, 주거지

역은 15m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중에서도 천지연계곡 200m 지점 안쪽과 송산동 해안지역은 각각 20m와 12m이하로 고도를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제 내용은 제주시의 상업지역 최고 42m, 주거지역 최고 20m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시민들은 경제,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였고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한라산과 해안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현재 타도시에 비해 강화된 고도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규제내용을 가지고도 현재 서귀포시내에는 부분별한 건축행위에 의해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설문을 통해 나오고 있다.

3)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구역의 설정은 서귀포 특유의 장소성을 높일 수 있는 구역, 서귀포에서 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구역, 서귀포시 고유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역등으로 한다.

(1) 공원 조성

- ① 먼나무 공원
- ② 여우물 가로공원 조성
- ③ 물오름 공원

(2) 가로환경 개선

- ① 중앙로 가로 환경 개선
- ② 보행자 전용 길 조성 : 폭포길, 솔동산길, 시장길
- ③ 자동차 일방 통행길 조성

〈표1〉 도시상 정립을 위한 환경개선 주요사업(안)

주 제	사 업	구 역	목 적	내 용
도시 속의 공원	먼나무공원 조성사업	구 시청 자리	중심가로 소공원 조성	이전 예상부지 공원활용
도시로 들어 오는 길	여우물 가로 공원 조성사업	삼매봉초입 삼나무터널	서귀포진입 경계부 조성	여우물 설화 장소성 부여
하늘에서 보는 서귀포	물오름 소공원 조성사업	5·16도로 수악교	서귀포칠십리 조감이미지 부여	차량주차공간 확보
새섬으로 가는 동백길	중앙로 가로 환경개선사업	중앙로(동백길)	교통류 조정 보행환경개선	보행길 보호 동백가로수 식재
사람이 모이는 폭포길	보행자 전용 시장길 조성사업	중앙시장, 동명 목화 백화점길	보, 차 혼잡동선 개선	차량진입규제 서비스차량 동선우회
섬이 보이는 폭포길	천지연길, 정방길 산책로 연결사업	천지연-부두- 정방폭포길	해안 경관의 연속적 감상	보, 차동선 정리 가로환경 개선
생활 속의 문화	솔동산길 문화거리 조성	수협지소-제일 장로교회-부두	소규모 문화 행사 유치	보행자 중심거리 거리연행예술유 치
웃손반내 되살리기	선반내 정비 개선사업	웃손반내 환경 정화	선반내 주변	하천변 환경 정비, 개선사업
소중한 소나무리	애이린내 정화사업	소나무리 자구리	정방폭포천 수질정화	생활하수처리

(3) 하천 환경 정비

- ① 선반내
- ② 애이린내

(4) 삼매봉 공원 종합 계획

- ① 보행진입로, 차량 동선 및 주차장 조정
- ② 삼매봉 이벤트 개발, 유치 : 프린스 호텔
- ③ 삼매봉 종합공원 조성

가. 외돌개－황우지 12굴－동너분덕－우두암

나. 프린스호텔 전망대－기당미술관－문예회관

다. 서귀포충 화석

라. 삼매봉산책길－남성정－시가지 전경－하논과 보로미－
각수암 경관

4) 문화관광 코오스 개발

- (1) 5·16도로－쉴터널－수악교－돈내코 계곡
- (2) 천지연폭포길－서귀포충 화석－해안 유람선 관광
- (3) 여우물삼나무터널－삼매봉산책길－남성정－시가지 전경－하
논과 보로미－각수암경관
- (4) 외돌개－동너분덕－황우지12굴－우두암－프린스호텔 전망대
－기당미술관－문예회관
- (5) 4·9일 오일장－중앙로－부두로－새섬
- (6) 정방폭포－소낭머리－허니문하우스－소정방
- (7) 시장길－토속음식점－솔동산길
- (8) 유람선 관광(중문－대포－월평－강정－법환－외돌개－부두－
쑥섬등)

2. 이벤트 계획

1) 서귀포의 이벤트

이벤트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주체가 사전에 계획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련의 행사이다. 현재 서귀포의 이벤트는 제주시와 비교하여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의 인구나 모든 정보,

문화 등이 제주시에 집중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니 만큼 서귀포의 독특한 문화활동이 탐구되고 개발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대도시에 문화활동이 집중하고 소도시에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서귀포의 현실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다.. 특히 서귀포 출신 문학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무대는 서울이나, 제주시인 경우가 많다.

(1) 서귀포의 문화활동

① 현재 서귀포의 문화시설로는 삼매봉 기슭의 기당미술관과 서귀포 시민회관, 그리고 시내 다방 등의 전시 정도가 전부이다.

② 기당미술관에서는 서귀포 출신 화가 변시지씨의 상설전시와 그 밖의 한국화, 동양화, 조각, 서예 등이 전시되고 있지만 그 이용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또한 지방 오케스트라의 순회공연 등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유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서귀포의 호텔들 문화행사 유치

① 누구나 서귀포의 문화공간이 없고 문화활동이 없다는 지적을 우선 내놓고 있다. 또한 서귀포에 자리잡은 국제적인 수준의 호텔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를 유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② 관광도시의 대규모 호텔은 물론 그 이용객 대부분이 타지의 관광객들이지만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는 그 지역 사람들도 적지 않다.

③ 현재 서귀포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서 필요한 문화적 욕구는 제주시까지 가서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현재 서귀포시와 제주시 사이를 통학, 통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서귀포에 문화적 이벤트가 너무 없고 그 이벤트를 수용할 만한 장소도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④ 서귀포에 많이 집중한 큰 호텔들이 관광객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겨냥한 문화적 행사를 많이 유치한다면 오히려 서귀포 사람들의 좋은 이벤트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제주시보다 더 다양하고 문화적인 이벤트를 계획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륙의 문화와 서귀포의 문화가 교류되고 또한 두 문화 사이의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각각의 문화적 분위기를 고양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오히려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시에서 몰려들게 될 것이다.

⑤ 제주도에는 도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 밖에 없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다. 제주시가 서울을 많이 닮았다면 서귀포시는 제주스러움이 더 많다. 더군다나 인구 8만을 넘는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⑥ 서귀포의 제주도스러움, 서귀포다움을 개발하고 유치할 때, 대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문화적 이미지를 가져다 줄 것이며, 서귀포를 문화관광의 주요대상지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이벤트 계획의 방향

(1) 도시상을 부각시키는 이벤트

- ① 관광상품의 개발(기념품)
- ② 도시 홍보용 매체의 개발, 상품화(그림엽서,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 ③ 수준 높은 예술행사의 유치(음악회, 연극, 미술 등)
- ④ 교육적 가치가 있는 이벤트(역사, 문화 등)
- ⑤ 서귀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외홍보(직접 해외홍보)

(2)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기초로 한 이벤트

- ① 전시, 소규모 박람회 : 서귀포 풍광을 담은 사진전, 한란 전시회, 서귀포를 주제로 한 미술작품

〈표2〉 현행 제주도 연중 이벤트

만설제 : 1월 하순(한라산)
 마을제 : 2월 초순(각 마을)
 중요 무형문화제 : 4월 초순(장소 수시결정)
 유채꽃 큰 잔치 : 4월 중순(장소 수시결정)
 철쭉제 : 5월 중순(한라산)
 조랑말 경주대회 : 4, 5, 6, 8, 10, 11월(제주 경마장)
 해변축제 : 7~8월(주요해변)
 낚시대회 : 연중(특히 8~10월)
 한라문화제 : 10월 첫째주(종합경기장)
 감귤축제 : 11월 초순(종합경기장)
 향교 춘, 추기석전제 : 봄, 가을(제주향교, 대정향교, 정의향교)
 삼성혈 춘기대제 : 5월 초순(음력4월10일)(삼성혈)
 삼성혈 추기대제 : 11월 초순(음력10월10일)(삼성혈)
 삼성혈 건시제(혈제) : 다음해 1월초순(음력12월10일)(삼성혈)
 한란전시회 : 11월
 한라산신제 : 10월3일(개천절)(한라문화제)

등 전시

- ② 공연 : 서울 등 주요 연극, 음악회, 뮤지컬 순회공연 유치,
서귀포 토착 극단 공연등
- ③ 축제 : 감귤축제 서귀포 유치, 마을제, 영실 철쭉제, 낚시대
회, 서귀포 칠십리축제 개발, 해변축제
- ④ 관광(서귀포 三勝七景)

〈표3〉 서귀포시의 연중 이벤트(안)

계절	월	행사명	주요이벤트	장 소
봄	3월 (음력 2월 초하루)	마을제	영등굿	강정, 보목, 법환, 송 당동 등
	춘분	춘계삼매봉제	남극노인성관찰 별맞이 행사 쑥섬 일출보기	삼매봉공원
	4월	유채꽃큰잔치 유채꿀 품평회 유채기름 판매	유채꽃사진촬영대회	서귀포시 전역
	5월	어린이 큰잔치	서귀포충, 황우지굴 등 역사유적지 오리엔티어링대회	구 시청 먼나무공원
		철쭉제	산악회 행사 등산대회	영실, 왕관릉 장구목 등
여름	7월 ~8월	해변축제	서귀포철인경기 사투리가요제 비치 발리볼 경기 천지연 야경길 걷기 해변설치 미술전 해상관광제 청소년 보물섬 잔치	중문 해변 관광유람선 새섬
		뉘시대회	참돔, 감성돔 등	강정해변 쑥섬, 범섬, 문섬

가을	9월 (추분)	추계삼매봉제	남극노인성관찰 별맞이 행사 쑈섬 일출보기	삼매봉공원
	10월	한라문화제	시가축동행진 시조문학상 주부가요제 해변 마라톤 대회 청소년 자전거경주 오돌또기 대사습	
	11월	감귤축제	귤따기 대회 감귤아가씨 선발 감귤 꽃향수 판매 세계감귤박람회 감귤사진전 한란전시회	감귤농원 문예회관
겨울	12월	송년제	송년음악회 사진전 연극제	
	1월	만설제	신년기원 농악마당 한라산 눈발기 대회	
	2월	동백제	동백길 걷기 동백사진대회	

3) 이벤트와 관련된 상품 개발

(1) 특산품의 개발

① 현재 제주도 기념품은 옥돔이나 돌하르방을 제외하고는 서울이나 경기도, 경상도산이고 게다가 수입 토산품도 있어 중국제, 동남아제가 대부분이다. 이는 제주산 토산품이 타지방 토산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지 못해서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② 서귀포지역 특징적인 세가지 맛(三味: 시러미차, 자리물회, 해

물뚝배기)과 서귀포 특유의 특산물로 개발해야 할 일곱가지(七品 : 감귤, 감귤꽃 향수, 감귤주, 담팔수 물감, 하는 쌀, 보목 불래낭 염주, 한란)를 중심으로 특산품의 다양한 개발과 현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관광상품 개발

① 관광회사 위주의 관광상품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즐겨 찾는 비경과 경관에 관한 공모를 통하여 특성별 다양한 관광코오스를 개발한다.

② 역사관광, 문화관광, 해상관광 코오스를 개발한다.

③ 해상관광코오스의 경우 부두를 중심으로 서쪽의 중문, 대정 등에까지 노선을 확장한다. 동쪽으로는 섣섬을 지나 위미, 남원, 표선에 까지 닿는 노선을 검토한다.

3. 도시상 정립사업의 성격

1) 도시상 정립의 효과

한 도시가 그 도시 특유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타 지사람들이 모여들게도 한다.

이런 점에서 서귀포시는 자랑스런 천혜의 자원을 충분히 간직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으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서귀포는 아직도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곳곳에 오염되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아름답고 깨끗한 서귀포를 가꾸고 간직하는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도시상 정립이란 바로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다. 바람직한 도시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서귀포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2) 도시상 정립사업의 성격

도시상 정립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서귀포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서귀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 당국의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서귀포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수반하는 효과가 시민의 이익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시 당국의 주도적인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1) 도시상 정립 사업 시행의 어려움

그러나 현행 법제 상으로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약하다. 특히 이 사업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희박하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획에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런 계획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으므로 행정당국이나 시민은 모두 처음부터 외면하기 쉽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라는 차원에서 실효성을 따지기 앞서 이런 사업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변화된 상황에 따라 개정될 도시계획법 등에 기본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일반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유도되는 사항 또는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개발이 계속될수록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서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의미를 가진 계획, 사업, 활동 등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도시상을 정립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2)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도시상을 세우는 데는 또한 시민의 생활양식의 집합인 문화라는 개념에 직결된다.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또 우월성이 있어야 하는 문화의 개념이 바로 도시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도시상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개 문화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로 인해 파급될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간과하기 쉽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시상과 직결되는 도시문화환경이 본질적으로는 도시의 경제 환경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3) 서귀포시 중심의 사고로 전환

서귀포시는 제주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니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서귀포 독특한 도시상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제주도가 그 전체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서귀포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더욱 빛낼 수 있다.

이제 서귀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힘써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제의 출발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고 서울 중심의 문화 구조에서 이제 각 지방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여 우리 주변의 삶부터 풍부하고 튼튼히 다져야 할 때인 것이다.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1) 공공부문

도시의 시상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계획함에 따라 형성되기 보다는 시민 각자의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면이 쌓여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 등 어떤 조직이 주도하는 전문적인 시상 정립 사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비전문적 활동이 조화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 전문부서

공공부문은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할 전문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주로 조사하고 기획하는 업무가 될 것이다. 현재 문화공보부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시상 구현 사업의 첫걸음일 것이다. 이 부서에서는 특히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상을 끌어내고 구체화하여 전문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직적 홍보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일 중 적극적인 홍보를 들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제껏 행정당국 차원에서는 관광용으로 홍보책자를 정성껏 만드는 정도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상을 세우기 위한 홍보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의 공식적인 홍보 매체 뿐 아니라 TV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물론 매체 개발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에서도 포괄적인 환경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도시에서의 환경이라는 구체적인 교육을 해내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서귀포시의 시상 정립에 대한 홍보내용 역시 개발해야 한다.

(2) 시민의 참여

시상정립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여 시민 대부분이 공감을 한다면, 자발적이고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가지 다양한 조직을 통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차원의 여러 조직의 활동

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시상정립 사업을 시민들이 단순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서귀포시에 있는 문학회, 사진연구 모임,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여러 조합, 학교, 설계사무소, 이벤트 회

사, 기획회사, 문화사업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서귀포 시상 정립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민 차원의 여러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도시의 바람직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이다.

·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참여 유도

도시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체성 구현을 놓고 그 설계, 공사, 관리 등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여러나라의 사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터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길, 광장, 공공시설, 공원 등에 관해 스스로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동네에 대한 정체성이 살아나고 적극적인 의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게도 될 것이다.

· 향토출신 인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 인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여 서귀포시의 시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① 시상 정립에 관련된 전문적 계획이나 행사에 기술적, 재정적,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교 동창회나 향우회, 직장 동우회 등을 활용하여 고향 및 모교 방문회(HOME COMING DAY)를 적극 유치한다.
- ③ 나무나 꽃과 같은 식물, 보도 포장이나 표지판과 같은 가로 장치물을 기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구좌를 설정한다.
- ④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할 수 있도록 소식지나 홍보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한다.
- ⑤ 서귀포시 시상 정립에 공헌이 큰 타지에 거주하는 향토인사들이나 타지출신 서귀포 거주민들에게 명예시민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향토애를 북돋게 한다.

· 시민의 참여 유도과 아이디어 수렴

시상에 관련된 각종 디자인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

또한 각기 지니고 있는 서귀포시의 三勝七景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한다.

시상의 자원을 주제로 한 백일장, 사생대회, 촬영대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 활용하여 널리 알리도록 한다.

· 서귀포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 준비

서귀포시 승격 20주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2,001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계획한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20주년 기념이벤트를 기획한다.

이는 서귀포시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바람직한 관광도시 서귀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명실공히 세계적인 서귀포를 가꾸어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서귀포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V. 결 론

이 논문은 도시상 정립을 통하여 서귀포시를 서귀포답게 가꾸는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우선 서귀포의 도시상 자원이 되는 것을 서귀포시가 정한 공식적 시상에서부터, 생활, 민요와 지명 등 총망라하여 모았다. 그리고 직접 조사를 통해 도시상에 관한 시민의 의식과 행태를 살펴보았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서귀포에 대한 생각을 한 줄기를 가지고 도시상으로 구상해 보았다.

그리고 도시상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요사업을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서귀포 길에 대해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또한 제주도에서만 제기되고 진행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에 기대를 걸어 보았다. 또한 현재 도심 시가지 환경에 대한 개선안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서귀포시를 걸어서 돌아보는 문화관광코오스를 제안하였다. 제주시 중심의 연중 이벤트를 서귀포 독자적으로 계획하는 이벤트로

설정하여 제안하였다.

지금 한창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주민들은 이 특별법에 힘입어 <관광시설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전을 이야기 하고 또 한편에서는 개발의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1차 산업의 장래가 불투명한 까닭에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바로 지금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야 할 때이다. 서귀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의견을 모으고 그에 비추어 현재 바람직한 도시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서귀포다운 개발은 오히려 서귀포에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에서 시작될 것이다.

도시상 정립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서귀포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물론 서귀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 당국의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서귀포시청 등 행정당국은 서귀포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수반하는 효과가 시민의 이익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즉 시 당국의 주도적인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내보이기 위한 공허한 관광자원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의 도시환경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더욱 훌륭한 개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시에 대한 도시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애향심을 증진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 우리 도시의 생활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다.

서귀포시의 고유한 도시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서귀포시는 이름 그대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 강태길(1991), 「동자석(童子石)」, 강태길 사진집, 봄데강.
- 고경미(1993), “제주도 서귀포시의 도시상 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협(1973), 시집 「천파만파」, 현대문학사.
- _____ (1992), 시집 「산촌서정(山村抒情)」, 도서출판 예하.
- 김문홍편(1985), 「제주식물도감」, 제주도.
- 김종기 외(1989),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
-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라이카사(1960), 「제주도명승안내사진첩」.
- 문충성 외(1982), 「한국의 발견 : 제주도 편」, 뿌리깊은나무, 한국브리태니커.
- 박용후(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변시지(1988), 「제주풍화집(濟州風畫集)」, 봄데강.
- 서귀포시(1987), 「西歸浦市誌」.
- 서귀포시(1991), 「서귀포시 통계연보」.
- 서귀포시(1992), 「제주관광정보」.
- 서재철사진/김영돈글(1990), 「제주해녀」, 봄데강.
- 송남석(1988), “꿈과 낭만의 국제관광향도-서귀포시”, 「도시문제」.
- 신상범(1992), 「오름들의 고향」, 신상범 사진집, 봄데강.
- 오성찬(1984), 「크는 산」, 제13회 도의문화저작상 소설부문 당선작, 삼성문화문고 별책 4.
- _____ (1990), 「한라산」, 고려원 소설문고 085.
- 오성찬 외(1986), 「영원한 고향마을 好近-西好里」, 제주의 마을 시리즈④, 도서출판 반석.

- 오성찬 외(1990), 「사삼 사태로 반 죽었어, 반! - 제주 중산간 농부
김승윤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민중자서전 14.
- 오승철(1984), “서귀포 칠십리”, 「도시문제」.
- 우낙기(1964), 「제주도」, 대한地誌I, 한국지리연구소 간행부.
- 이대우(1992),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의 의의와 방향”, 「도시문제」.
- 임업연구소(1987), 「한국수목도감」, 산림청.
- 장주근 외/김수남사진(1983), 「제주도 영등굿」, 한국의 굿 3, 열화당.
- 정주시/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1992), 「시상정립기본계획」.
- 제주도(1992), 「제주통계연보」.
- 제주도(1985), 「제주도 전설지」.
- 제주도(1982), 「제주의 문화재」.
- 제주문화방송(1990), 「제주 무인도 학술조사」.
- 제주徐福연구회(1992), 「정방폭포 서북유적조사보고서」, 서귀포시.
- 한기팔 외(1991), 「쑥섬 마주 앉은 유서깊은 고장 甫木里」, 제주의 마
을 시리즈11, 도서출판 반석.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1992),
「도시문화환경 개선방안연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1),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100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9), 「제주도 지역경제의 육성방안-관광 산업
육성체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제65권.
- 현길언글/고길홍사진(1993), 「한라산」, 빛깔있는 책들 143, 대원사.
- 황경수(1993),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집단요구표출 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
문.

A Study on the City Image Program for Seoguipo City

Ko, Kyung MI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master-plan for making and presenting reasonable and clear city image of Seoguipo city by reflecting the Seoguipo city's historic and cultural tradition and predicting a direction of future city development.

Seoguipo has been known as the best touristic destination, especially for honey moon tour. For last 20 years, Cheju-do has been rapidly developed as a touristic destination, but the development leaned to the outside view — large scale resorts were created regardless of natural environments.

The citizens of Seoguipo city insist that the natural environments be protected (or preserved), whereas some of them emphasize on the touristic development of the c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must be inevitable work to establish the city image of the Seoguipo city for desirabl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inside view — the people living in the city.